

## 마무리 발언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 데  
충분한 시간이 되지는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할 것입니다.

저 노무현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일후보로 누가 나서야 하느냐고 묻거든  
제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원하시면  
노무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대결과 분열의 지긋지긋한 지역감정을 끝내고  
화합과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원하십니까?  
노무현이 걸어왔던 길을 떠올려 주십시오  
지난 15년 동안 한결같이 지역주의와 맞서 싸워왔습니다.

돈으로 줄 세우는 금권정치, 계파정치  
뒤에서 자리 나누고 흥정하는 야합과 밀실정치  
이당 저당 기웃거리며 보따리를 싸는 철세정치  
3김 식 낡은 구태정치로 회귀하는 이회창 후보를 반대한다면  
노무현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리와 의혹이 없는 후보는 저뿐입니다.

수사대상이 아닌 후보도 저뿐입니다.

출처가 분명한 돈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사람도

노무현 저뿐입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서민과 보통 국민들의 애환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저뿐입니다.

소박한 직장인들이 신용카드, ARS로 저를 돕고 있습니다.

반찬값을 아끼고 수술비까지 포기하고 돼지저금통을 모아

국민 여러분께서 22억 원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런 후보는 전 세계에 노무현 하나뿐입니다.

‘알고 보면 노무현이다’

이런 말씀을 수 있도록 살아왔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진정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 대권의 시대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리고 따르겠습니다.

‘두 번만 생각해보십시오. 노무현이 보입니다’

저 노무현을 선택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